

박동철의 사진 강좌

박동철

사진

강좌

- 두 번째 - 구성과 구도

구성은 구도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며, 서로 구별되어야 하지만 실제 사진예술에는 이 두 가지가 상관하면서 주제를 표현하게 된다. 또한 구성이나 구도 모두 인간의 균형감과 조화로움을 느끼는 시각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는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진 기법들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응용하고 활용하면서 내 것이 되고 작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두 번째 시간으로 사진의 구성과 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편집자 주〉

사진강좌 연재 일정

1. 사진을 만들어내는 요소

- 가. 빛
- 나. 카메라와 노출

2. 구성과 구도

- 가. 구성과 구도의 차이
- 나. 시점의 차이
- 다. 지그재그 배치법

3. 화면 속 피사체의 배치

- 가. 전경
- 나. 중경
- 다. 원경

4. 황금분할의 응용

- 가. 황금분할법
- 나. 삼분할법
- 다. 여백과 공간

5. 초점 거리별 렌즈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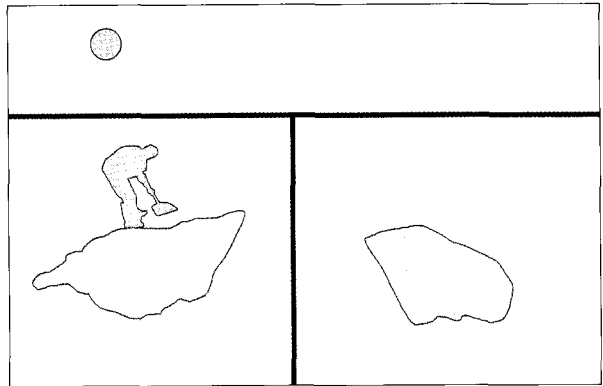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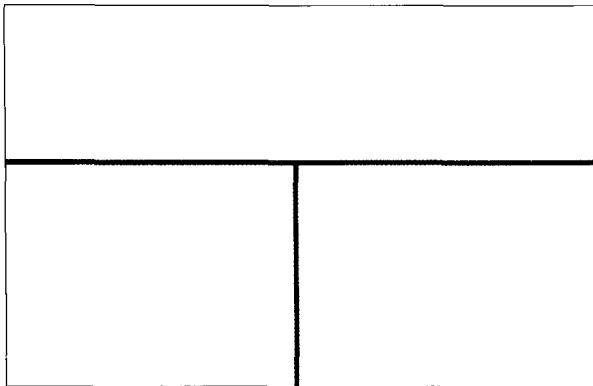
- 가. 표준렌즈
- 나. 망원렌즈
- 다. 광각렌즈

6. 눈에 띄는 사진 만들기

- 가. 대비
- 나. 타이밍
- 다. 보조피사체

가. 구성과 구도의 차이점

사진 속에 큰 줄기가 되는 물체나 기타의 피사체들의 배치를 통하여 작가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는 배치 행위를 구도(Composition)라고 한다. 이 구도를 기본으로 알고자 하는 의미가 더욱 명확히 전달되도록 사물을 가감하거나 혹은 그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등의 조작을 통해 사진을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드는 조형 행위를 구성(Construction)이라 한다. 따라서 구성은 구도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며, 서로 구별되어야 하지만 실제 사진예술에는 이 두 가지가 상관하면서 주제를 표현하게 된다. 또한 구성이나 구도 모두 인간의 균형감과 조화로움을 느끼는 시각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는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진 기법들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응용하고 활용하면서 내 것이 되고 작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화면의 구성을 위한 구도는 한정된 법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수평선구도니, 삼각형구도니 하는 등의 도식적인 법칙 등을 예시하는 것은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현대의 젊은 사진가들로부터 탄생되는 창조적 기법의 사진들을 짓밟는 저해요소로 전락할 수 있다. 구도에 관한 서투른 선입관 자체가 창작에 방해가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모름지기 탄탄한 기초가 없다면 모든 일들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니 일반적인 구도가 지닌 심리적인 효과 등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위의 사진은 한창 소금을 거두고 있는 염전의 풍경이다. 수평선과 수직선이 화면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구도의 사진이지만 보다 극적인 느낌을 자아내기위해 다양한 구성을 필요로 한다. 즉, 수평선을 화면의 중앙이 아닌 위쪽 1/3 위치로 이동시켜 안정감을 주고, 소금을 쓸어 담는 염부의 모습을 보조피사체로 선정하였다. 또 좌, 우 대칭으로 소금더미를 배치하여 풍부한 소금밭의 느낌을 만들고 사진의 노출을 줄여 태양의 형태와

박동철의 사진 강좌

다른 피사체의 실루엣을 잘 표현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추가적 행위를 구성이라 한다.

박동철

사진

강좌

나. 시점의 변화와 느낌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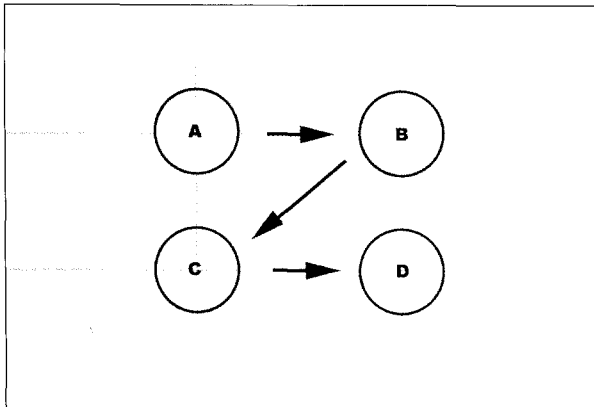
자연을 나타내는 풍경사진에서 주제를 원하는 위치에 옮겨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주제를 옮길 수 없다면, 카메라를 옮길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시점(視點)의 변경인데 부단한 움직임과 렌즈의 초점길이 변화에 따라 결과물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광각렌즈를 이용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커다란 이미지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초점이 긴 망원렌즈는 프레임에 변화를 주기 위해 광각렌즈보다 더 많이 움직여야한다. 작가의 의도와 사상을 담아 사각 틀(뷰파인더) 안에 사물을 재배치하는 사진창작은 공간과 시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이 촬영한다고 할지라도 사진은 제각각 다른 느낌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결국 광선의 질감과 방향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부드러운 햇살은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고, 강렬한 햇살은 강렬한 느낌을 만든다. 또한 햇살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역광, 옆에서 비춰지는 사광, 카메라의 뒤에서 피사체의 정면으로 비춰지는 순광인지에 따라 사진의 느낌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다. 사진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 결국 순간을 나타내게 되는데, 완벽한 사진을 위해선 순간을 포착해서 정확하게 담아내는 순발력도 필요하다. 시간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영상물에 비해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촬영자의 의도를 전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상의 사진은 단 하나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레임해보고 가장 좋은 장면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 지그재그 배치법

화면 구성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는 곧 사진 속에 내가 서 있는 듯한 현실감과 입체감을 느낀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화면 속 장면이 빠져들어 사진이 전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분할 비율은 황금비율이라고 하지만, 사진에서는 그보다 화면을 가로로 삼등분, 세로로 삼등분하여 배치하는 삼분할법이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분할법은 특히 바닷가의 풍경이나 일출의 모습을 촬영할 때 수평선의 위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이와 더불어 이용되는 지그재그 배치법은 주제와 부제의 효과적인 배치를 통해 사진을 보다 돋보이게 해준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사진 속의 다양한 피사체들을 A, B, C, D에 배치하는 것이 그것인데, 화면의 삼분할 교차점에 두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배치하지 않더라도 지그재그 배치법은 감상자의 시선을 화면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도록 만들어 구성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도와준다. 또한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켜 버리면 단조로움과 밋밋함 때문에 쉽게 실증을 느끼지만, 이 배치법을 통한 화면 구성은 긴장감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화면을 더욱 생기 있게 만들기도 한다. 정확히 네 개의 요소가 아니라도 지그재그 배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화면은 더욱 실감나고 현실감이 느껴진다.



박동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진 활동을 시작하여 전국 각지를 구석구석 여행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사진에 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여행지를 대표하는 '여행이 즐거워지는 사진 찍기' 1편과 2편 및 사진전문 서적 '사진의 구도&구성' 등을 출간했다. 2001년 필름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십 차례의 사진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유명 여행지와 사진촬영기법 소개를 위해 TV와 라디오 등에도 수차례 출연한 바 있다. 2008년과 2009년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P&I)에서 사진학 강의를 비롯한 각종 사진학 강의 및 세미나를 주관하며 사진 계에서는 유명강사로 정평이 나왔다. 현재 사진동호회 처리닷컴(<http://cheori.com>)을 운영 중이다.